

사회



15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중앙교회 앞 마당에서 예배당의 출입을 막는 신도들에 맞서 다른 신도들이 출입을 허용하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중앙교회 신도들 담임목사 면직 몸싸움

신도 6명 이상 실신·부상

호남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광주 중앙교회가 담임목사의 면직과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면직 찬반 신도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전남제일노회(노회장 김광현 목사)로 부터 면직을 당한 채도 목사의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뉜 신도들은 15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예배당 지하주차장과 앞 마당에서 예배당 진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 신도 6명 이상이 실신하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몸싸움은 예배당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채 목사 지지파(광주 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신도 300명과 이를 뚫고 예배당에 진입하려던 반대파(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중사모) 신도 200여명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광주중앙교회 일부 장로들이 채 목사의 설교 내용을 문제삼아 지난 4월 상급기관인 전남제일노회 재판국(국장 김영길 목사)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회 재판국은 지난 4월9일 채 목사가 기독교 교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결정했으며, 결정에 반발한 채 목사는 노회의 상급기관인 총회에 이의를 제기해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노회)재판 결과 효력 정지 및 진행 중지' 명령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된 정모 목사 등은 노회의 면직 결정을 바탕으로 광주지법에 채 목사의 '출입금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 목사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를 어길시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채 목사와 지지파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법원 판결의 토대가 된 노회 재판국의 결정은 상급기관인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효력 정지' 처분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법에 따라 채 목사가 담임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성스러운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폭력과 무질서, 서류 탈취와 물품 반출 같은 불법이 자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사모측은 "법원의 고시가 내려졌으므로 채 목사와 비대위측은 더 이상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교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예배당 문을 열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 채증 등을 통해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내달 28일까지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17년 복문밖 교회(별칭 중예배당)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광주중앙교회는 15일 현재 신도 수 4600여명, 세례 교인 7000여명에 이르는 광주 지역 최대 교회 중 하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청소년 자살 급증

광주·전남 5년간 74명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은 지난해에만 18명의 초·중·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청소년 자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광주·전남의 청소년 자살건수는 총 74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청소년 자살건수(724명)의 10.2% 수준으로, 2009년 현재 광주·전남의 인구비중(6.7%)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지난해 13명의 초·중·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008년(6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의 학생 자살자 수는 2005년 4명, 2006년 9명, 2007년 11명 등으로 늘어나다 2008년 6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전남도 지난해 5명

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008년(4명)보다 1명 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자살자 수는 총 202명으로, 2008년(137명)에 비해 47% 증가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인별로는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 69명(34%)이 목숨을 끊었고, ▲우울증·비관 27명(13%) ▲성적비관 23명(11%) ▲이성관계 12명(6%) ▲신체결함·질병 7명(3%) ▲폭력·집단괴롭힘 4명(2%) ▲기타 59명(29%) 등이었다.

이 가운데 '기타'는 가족이나 교사 등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자살자를 의미한다. 청소년 자살자 10명 중 3명은 정확한 이유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춘진 의원 측은 "이유없이 자살을 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30%나 된다는 점에서 자살자들에 대한 관심, 예방책 등을 명시한 일본의 자살대책 기본법과 같은 법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094) 김장두



서울 폭발버스 같은 기증 광주 시내버스 13대 운행 중단

광주시는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폭발한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같은 2001년 제작된 버스 13대의 운행을 지난 14일부터 중단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서울 시내버스 폭발사고 직후 자체점검을 통해 가스 누출 우려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때까지 동일 기종의 차량 운행을 중지키로 했다.

현재 광주는 총 시내버스 952대 가운데 CNG 버스 925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버스 13대가 사고 버스의 생산연도인 2001년에 D 업체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5000원권 잘 살펴보세요”

광주·전남 을 발견 위조지폐 증 절반 차지

광주·전남지역에 '구(舊) 5000원권' 주의보가 내렸다. 올 들어 위조에 취약한 구 5000원권이 대거 시중에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을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194장으로, 지난해 상반기(132장)보다 47%(62장) 늘었다. 이 가운데 92장은 구 5000원권 지폐로 전체의 47.4%에 이른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 가운데 절반은 5000원권인 셈이다.

올 들어 5000원권 위폐가 광주·전남에서 대거 유통됨에 따라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5000원권 위폐 7장의 유통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 5000원권 위폐는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듯 비교적 조잡해 금융기관에서 적발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결별 선언 앙심 “가족 모두 살해” 협박

동거녀 노모 목졸라 실신 밭도랑에 버린 50대 영장

결별을 요구한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고 가족을 협박한 뒤 만남을 반대해온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6일 헤어질 동거녀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려한 백모(51)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인근 뒷밭에서 전 동거녀의 어머니 이모(80)씨를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인근 도랑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1년간 동거해온 동거녀가 “가족들이 우리의 만남을 반대한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또 동거녀의 가족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동거녀의 집 인근에 머물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경찰에서 “동거녀 가족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숙집 TV 훔친 ‘철없는’ 고교생들

○하숙집으로 이사 온 지 하루 만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숙방 안에 있던 TV를 훔친 ‘철없는’ 고교생 2명이 경찰서 행.

○1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2년 최모(17)군 등 2명은 지난달 12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김모(38)씨의 하숙집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TV 한 대를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가솔 청소년인 이들은 전남 김씨와 방 계약을 한 뒤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TV를 훔쳐갔는데, 경찰에서 “고물상에 내다 팔려고 들고 나왔으나(TV가) 너무 무거워 길가에 버렸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아파트 승강기서 4명 40분간 갇혀

어제 광주 북성동, 안전검사 하루 만에 고장

15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북성동 M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안전검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고장나 김모(19)양 등 입주인 4명이 40여분간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양 등은 사고 직후 비상인턴까지 작동되지 않아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으며, 1층에 있던 김양 아버지(48)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 승강기는 지난 13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인 H업체가 설치해 다음날인 14일 승강기 안전검사업체의 안전검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 등은 “어떻게 안전검사까지 마친 승강기가 하루 만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업체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기기자 kimho@

귀가 여성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광주서부경찰

광주서부경찰은 15일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택시운전기사 정모(32)씨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원룸에 사는 이모(여·26)씨의 집

에서 이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원룸 밀집지역에 자신의 택시를 정차해둔 뒤 귀가 중인 이씨를 몰래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와인스쿨 에폴 뒤 뱅 입문반 개강

2010.8.30부터 9주 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7:00-10:00)

과목: 와인스쿨 에폴 뒤 뱅 입문반 개강

강사: 김대성

장소: 와인스쿨 에폴 뒤 뱅

문의: 02-123-4567

2010.8.30부터 9주 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7:00-10:00)

과목: 와인스쿨 에폴 뒤 뱅 입문반 개강

강사: 김대성

장소: 와인스쿨 에폴 뒤 뱅

문의: 02-123-4567